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일상의 식사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원유민
조장희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청림동 517-1
용도	제 1종 근린생활시설(무료급식소)
대지면적	4,729.56m ²
건축면적	322.28m ²
연면적	493.67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9.6m
건폐율	25.79%
용적률	35.22%
구조	기초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층 : 철골조+경량철골조
구조설계	한길구조
설계	원유민 · 조장희
설계담당	정희중 · 정다혜
시공	포스코 휴먼스
기계 · 전기설계	(주)정연 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18. 3.~2018. 8.
시공기간	2018. 9.~2018. 12.
공사비	약 10억 원
건축주	포스코(POSCO)



주변상황과 대비되는 형태의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무료급식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던
이곳의 식사가 하루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새롭게 변신한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는
밥을 먹으며 쌓이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커뮤니티의 장이되었다.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전경





©제이와이이키텍츠 건축사무소



상·좌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내부
 상·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창
 하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식당공간 입구



상 벽에서 지붕까지 연결된 유리창
하 2층에 마련된 북카페

가장 단순한 검정색의 박스(Box) 형태를 만들어, 형태와 색상에서 단순하면서, 동시에 쉽게 인지되는 명확한 아이콘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단순한 형태를 통해, 그 안에 넣고자 했던 내부 공간, 그 중에서도 식사를 하는 식당공간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검은색과 붉은색, 단순한 박스 형태의 외곽 라인과 유리로 되어 있는 찌글찌글한 형태가 만드는 강렬한 대비를 통해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가 지역의 아이콘(icon)으로 인식되길 원했다.

©제이아이케이텍조 건축사무소



쪼개진 박스에서 새어 나오는 붉은색 공간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과거와 그 이유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이유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와 심해지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혼자사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여러 지표는 의미가 있다.

이곳 포항 청림동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 또한 노인의 비율이 높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점심을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에서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가까운 도보로 수십 분, 멀리는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거리에 사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되기 한두 시간 전에 무료급식소에 도착한다. 이곳에 와서 밥 먹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며 놀이를 하고, 햇볕을 쬔다. 그러다 식사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며 또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고는 다시 걷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매일 벌어지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노인들은 이곳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 어쩌면 무료급식소에 와서 노인들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 지극히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회복과 향유인지도 모른다.

사실 과거의 무료급식소는 물리적·경제적으로 끼니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무료급식소가 유지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좀 다르다. 무료급식소는 이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관계를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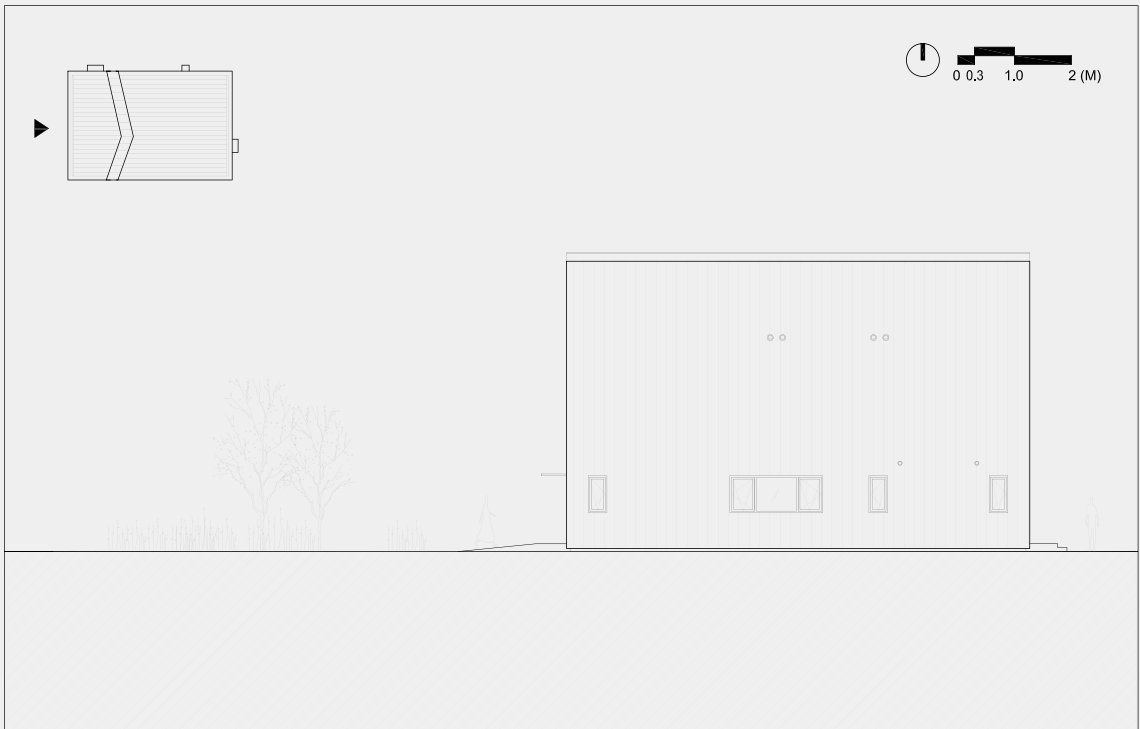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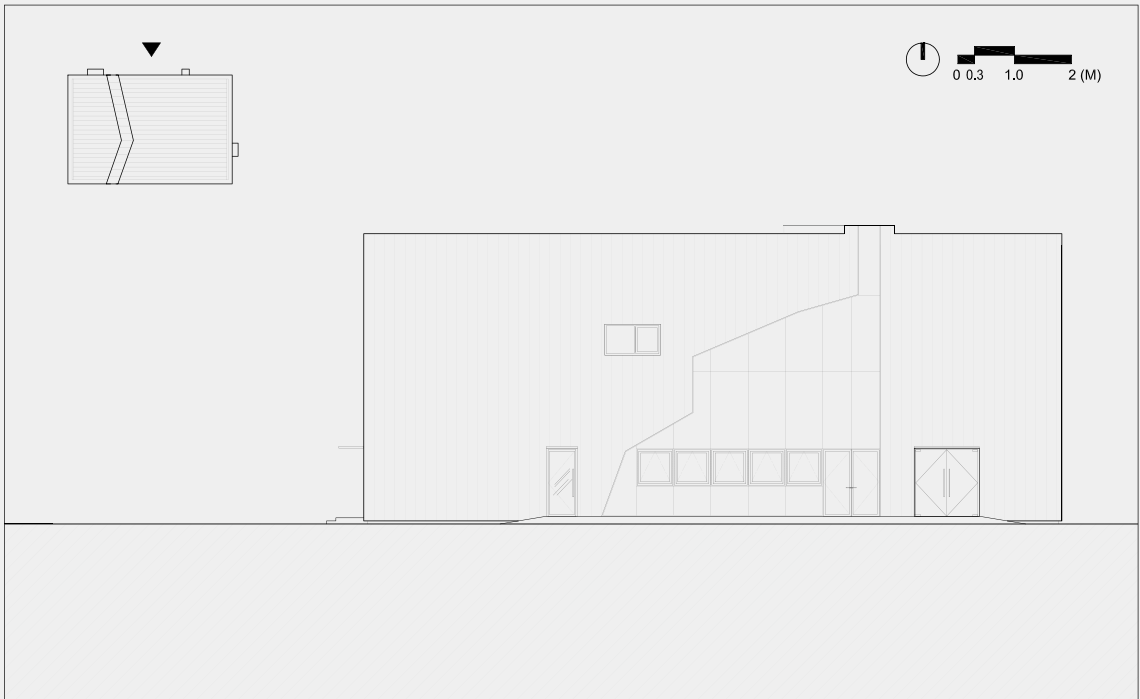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특별한 경험

하지만 현재의 무료급식소 공간은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급식소 내부는 뒷사람과 서로 등이 닿을 만큼 좁고, 천장이 낮아 답답하고, 내 앞에 놓인 식판 외에는 시선 둘 곳조차 마땅치 않다. 건조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다.

©제이와이이커텍초 건축사무소



상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전경
하 쪼개진 박스에서 새어 나오는 붉은색 공간



입면도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소의 공간은 여전히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끼니를 때우는 공간’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한 공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밥 먹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그 중요성을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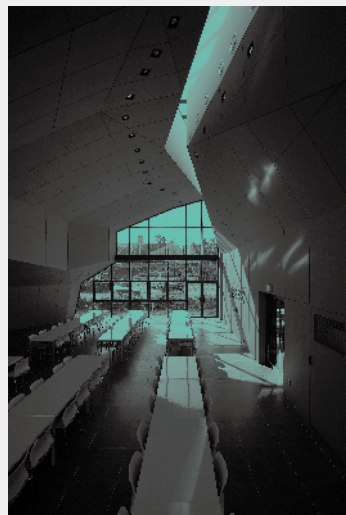
우리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여유 있게 의자를 빼고 앉아도 뒷사람과 서로 방해되지 않기를 바랐고,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돌리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고, 창밖으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눈이 오면 그 느낌을 내부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와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였다. 비가 유리에 부딪쳐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고, 태양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의 역동적인 형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계절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며, 세월의 흐름과 시간의 지남을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 안에서 먹어치우는 식사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여유롭고 근사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랐다.

즉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매일 벌어지는 밥 먹는 행위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매일 벌어지는 특별한 경험 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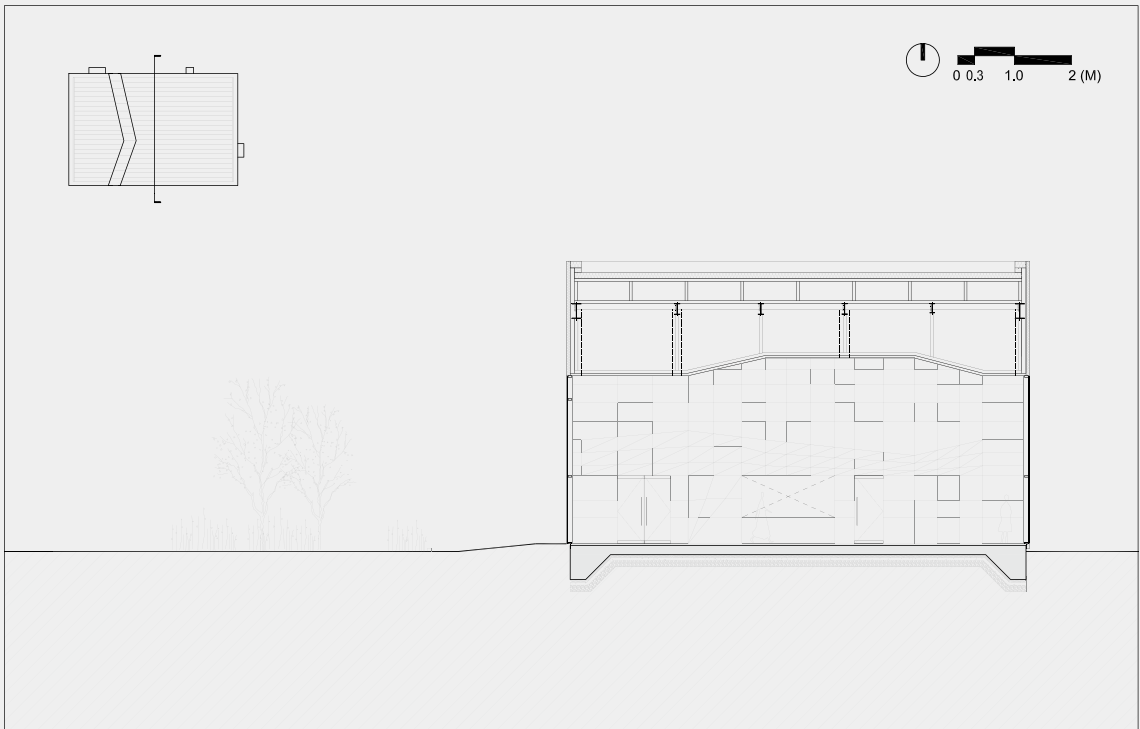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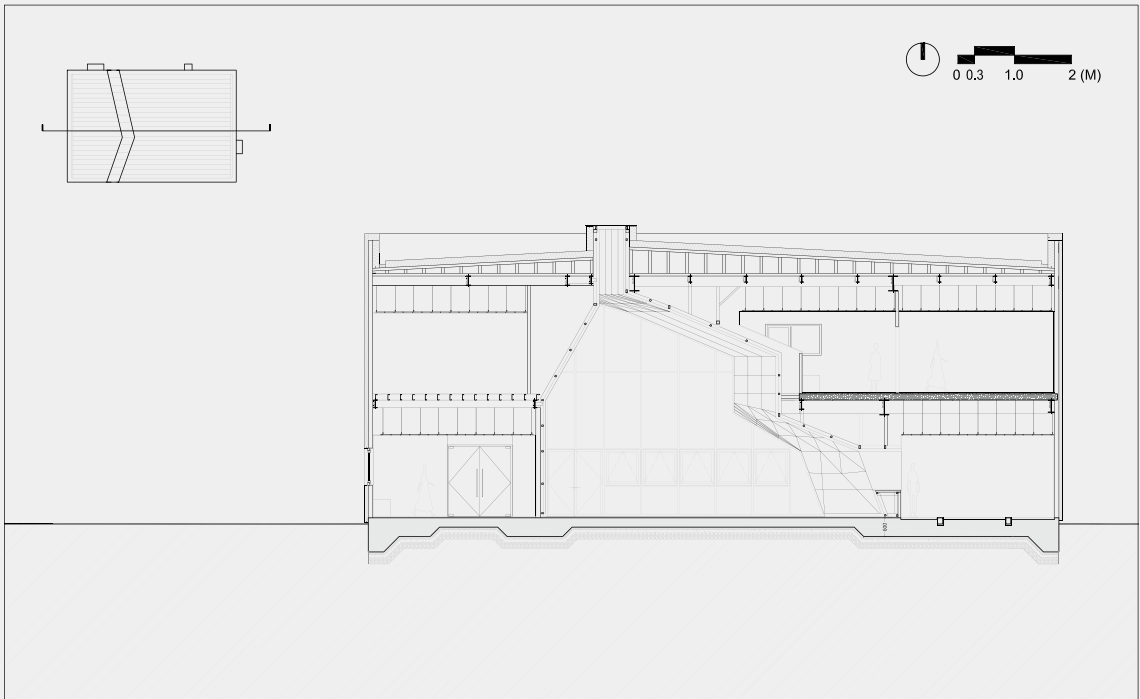
단순하면서 동시에 강렬한

청림동에는 포스코(POSCO) 제철소, 여러 공장들 그리고 각종 정비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로 인해 주변 환경이 어수선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쉽게 눈에 떨어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주변 상황과 대비되는 형태로서 가장 단순한 검은색의 박스(Box) 형태를 만들어, 형태와 색상에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인지되는 명확한 아이콘(Icon)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단순한 형태를 통해 그 안에 넣고자 했던 내부 공간, 그중에서도 식사를 하는 식당 공간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이와이이케이텍 건축사무소



상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창
하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내부



단면도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어수선한 공장 굴뚝과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대형 트럭과 장비들, 어디서나 있을 법한 관공서 건물들 사이에서 검은색의 네모 박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바위가 갈라진 것처럼 두 개로 쪼개진 박스에서 새어 나오는 붉은색 공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돌리게 할 것이고, 궁금하게 만들 것이다. 일상에서 보지 못하던 낯선 이미지이기에... 이렇게 검은색과 붉은색, 단순한 박스 형태의 외곽 라인과 유리로 되어 있는 찌글 찌글한 형태가 만드는 강렬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이 건물이 지역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인식되길 원하였다.

자연의 변화를 품은 원시적 형태를 닮고자 한 식당

밥을 먹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기 공간을 거쳐 마주하게 되는 식당 공간에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한 것은 자연의 빛과 바람 그리고 오랜 시간이 만들어 낸 것과 같은 비밀상적 스케일과 형태였다.

우리는 우선 이 공간이 한 번에 인식될 수 있는 공간 형태가 아니길 원하였다. 흔히 접하는 직육면체와 같은 공간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는 위치와 시선의 각도, 바라보는 높이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보이는 내부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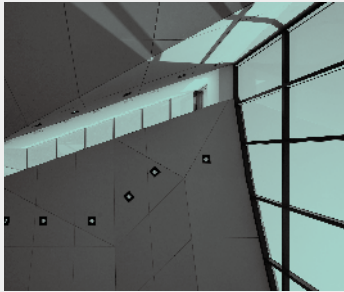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개입되면 내부 공간의 다양함은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시간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를 단순한 2차원의 창이 아닌, 벽에서 지붕까지 연결된 유리를 통해 3차원적으로 내부 공간에 반영하면 공간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의 벽체는 비정형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마치 건물이 쪼개지듯이 벽과 지붕이 유리로 연결되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형태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을 동경하던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동경하는 이유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는 사람이 애써 의식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온몸의 감각을 통해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예측 불가능한 공간의 변화무쌍함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제이아이케이텍 건축사무소



상 주변상황과 대비되는 포항 청림 나눔센터
중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식당공간 입구
하 포항 청림동 나눔센터 식당공간



©제이아이이케이텍 건축사무소



상 벽에서 지붕까지 연결된 유리창
하 2층에 마련된 북카페

건물의 2층에는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작은 북카페와 세미나실 등이 있다. 이 공간에서 식사 전후에 혹은 일상적으로 책을 읽거나 장기·바둑과 같은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밥 먹는 행위에 더해 사회적 교류와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기업과 지역과 주민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공간은 제철소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포스코가 자비로 지어서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완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에서 조직된 건축위원회와 지자체 그리고 포스코가 함께 여러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상호 이해하고, 각자의 의견과 요구들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더러는 그 과정이 생산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요구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첫 행사는 새해를 맞아 지자체가 마련한 식사 자리였고, 많은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초대되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소위 ‘붉은 골짜기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무료급식소 공간이냐”는 질문 아닌 질문을 하며 놀라워했다. “매년 하던 새해맞이 식사였는데 이렇게 색다른 느낌은 처음”이라는 말씀도 많았다.

우리가 원한 것은 이처럼 매년 하던 혹은 매일 같이 행하던 일상이 이 공간으로 인해 좀 더 즐거워지고 좀 더 특별해지는 일이었다. 이제 이 공간을 그러한 일상으로 채워 나가는 주체는 급식소를 이용할 지역 주민들과 매일같이 변하는 자연일 것이다. 그저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잘 쓰이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 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